

# '92전자업계 투자실태 및 전망(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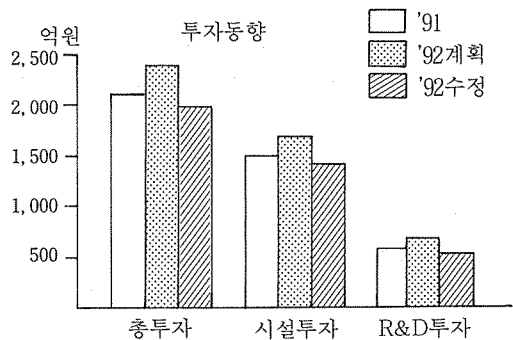
본회기획과

본고는 최근 우리 전자산업계의 투자실태 및 전망을 중심으로 투자관련 애로요인을 파악하여 이의 타개방안을 모색하고 업계 투자재원의 소요계획을 사전에 파악 향후 정책지원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코자 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본회 회원사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이며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임을 밝힌다.

## 1. 투자동향 및 전망

### 1) 투자 동향 및 전망

'91년도 전자업계의 투자는 전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1%의 증가세를 보인바 있는데 금년도의 투자는 당초계획으로는 '91년 대비 10.6%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수출경기 및 내수의 부진 등 전반적인 판로위축으로 인한 투자심리의 극도악화로 당초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91년 대비 -8.5%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투자는 당초 8.3% 증가로 계획되었으나 -9.0%의 감소로 축소조정이 예상되고 연구개발 투자는 당초의 16.1% 증가 계획에서 -7.1%로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단위 : 억원, %]

구분	'91년실적(A)	'92년계획(B)	'92년 전망	증감율	
				B/A	C/A
총투자	2,168.8	2,398.9	1,985.3	10.6	-8.5
시설투자	1,527.2	1,653.2	1,389.5	8.3	-9.0
R&D투자	641.9	744.7	595.7	16.1	-7.1

상반기 투자실적 및 하반기 전망으로는, 연초에 계획한 투자의 집행실적 및 전망을 보면 상반기에는 시설투자가 75.4%의 달성율을, R&D 투자가 74.1%의 달성율을 보여 총투자는 76.1%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하반기의 계획 대비 집행전망은 시설투자가 92.2%, R&D 투자가 85.7%의 달성율이 예상되어 상반기 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반기 투자집행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연기투자의 일부집행 등의 요인에 의한 현상때문에 상반기

[단위 : 억원, %]

구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초 계획	달성 전망	달성 율	계획	실적	달성 율	계획	전망	달성 율
총투자	23,984.9	19,833.8	82.8	11,744.2	8,811.5	75.0	12,240.7	11,042.3	90.2
시설투자	16,538.2	13,886.5	84.0	8,081.7	6,088.9	75.4	8,456.5	7,799.6	92.2
R&D투자	7,446.7	5,957.3	80.0	3,662.5	2,714.6	74.1	3,784.2	3,242.7	85.7

보다는 다소 집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문별 전망을 보면, 부문별로 투자의 달성 전망은 가정용기기가 84.1%, 산업용기기가 76.1%, 전자부품이 86.7%를 보여 산업용부문의 투자달성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컴퓨터산업의 침체 등으로 기존설비의 가동율마저 떨어지는 실정에서 설비확장 및 신규투자 등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정용기기와 산업용기업체는 신규투자의 부진속에서도 R&D 투자는 시설투자를 웃도는 달성율을 전망하고 있어 기술개발 투자에는 다소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부품의 경우는 R&D 투자가 시설자에 크게 못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중소기업의 업체로 구성된 부품업체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 : 억원, %]

구분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전자부품		
	연초 계획	전망	달성 율	연초 계획	전망	달성 율	연 초 계 획	전 망	달성 율
총투자	9,869.9	8,294.8	84.1	6,473.1	4,928.5	76.1	7,644.9	6,631.5	86.7
시설투자	5,880.4	4,919.9	83.7	4,191.6	3,188.6	76.0	6,466.2	5,791.0	89.5
R&D투자	3,989.5	3,374.9	84.7	2,281.5	1,741.9	76.3	1,178.9	840.5	71.3

규모별 전망을 보면,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시설투자는 당초계획대비 84.5%, R&D 투자는 80.8% 달성이 전망되 총투자는 83.3%로 예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시설투자가 73.8%, R&D 투자는 66.9%의 달성율이 예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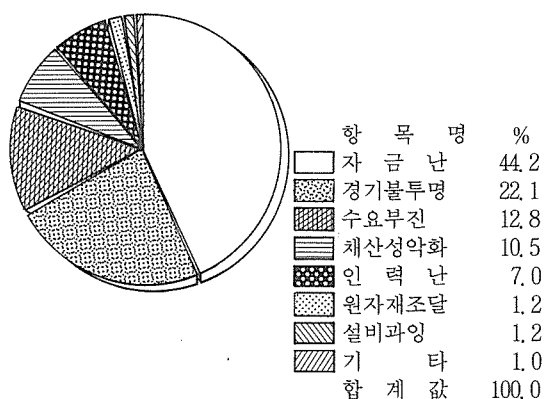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연초 계획	전 망	달 성 율	연초 계획	전 망	달 성 율
총 투자	22,858.9	19,051.2	83.3	1,126.0	802.6	71.3
시설 투자	15,826.4	13,370.9	84.5	711.8	525.6	73.8
R&D 투자	7,032.5	5,680.0	80.8	414.2	277.0	66.9

상되어 총투자는 계획대비 71.3%에 그칠것으로 전망된다.

## 2) 투자부진사유

연초의 투자계획에 비해 투자집행이 저조한 사유로는 전체적으로는 자금조달 곤란이 44.2%, 경기전망 불투명이 22.1%, 수요부진이 12.8%, 채산성 악화가 10.5%, 기능인력확보 곤란이 7%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는데, 규모별로는 다

투자부진사유



소 응답률의 차이는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자금조달 곤란, 경기전망 불투명, 수요부진 채산성 악화 등이 주요 투자부진사유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투자부진 사유로 가정용기기는 경기전망 불투명 50%, 자금조달 곤란, 37.5%, 채산성 악화 12.5%의 순으로 지적, 자금조달 곤란보다 경기전망 불투명을 더 큰 투자부진 사유로 보고 있으며, 산업용기기는 자금조달 곤란 63%, 기능인력확보 곤란 14.8% 경기전망 불투명을 11.1%, 채산성 악화를 7.4%가 응답하여 기능인력확보 곤란을 투자 부진요인으로 지적한 업체비중이 타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자부품은 자금조달곤란 35.3%, 경기전망 불투명 23.5%, 수요부진 19.6%, 채산성 악화 11.7% 등의 순으로 투자부진 사유를 지적, 기업계의 부진에 따른 수요부진을 지적한 것이 특징이다.

[단위 : 구성비, %]

부진사유	조사 업체		규모 별		부 문 별		
	대기업	중소기업	가정용	산업용	전자부품		
자금조달곤란	44.2	44.4	44.1	37.5	63.0	35.3	
경기전망불투명	22.1	27.8	20.5	50.0	11.1	23.5	
수요부진	12.8	11.1	13.2	-	3.7	19.6	
채산성악화	10.5	5.6	11.8	12.5	7.4	11.7	
기능능력확보곤란	7.0	5.6	7.4	-	14.8	3.9	
원자재 가격상승 및 조달곤란	1.2	-	1.5	-	-	2.0	
설비과잉	1.2	-	1.5	-	-	2.0	
기타	1.0	5.5	-	-	-	2.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3) 동기별 투자실태

설비투자를 행하는 동기별로 '92년의 투자내역을 보면 응답업체 전체로는 '91년도에 비해 설비능력 증가, 유지보수 등의 투자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동화 및 에너지절약 투자 등 성력화 투자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가 설비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비중이나 자동화,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대기업보다 큰 반면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등 투자비중은 대기업보다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설비능력 증가를 위한 투자비중은 산업용기기만이 다소 증가되고 있을뿐 타부

문은 감소추세에 있고 자동화 투자비중은 전부문이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폭을 전자부품 및 산업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가정용이, 연구개발 설비투자는 산업용이 각각 타부문에 비하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투자자금 조달실태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내역은 응답업체 전체로는 내부자금 조달 보다는 외부자금 조달비중이 크지만 '91년도에 비하여 내부자금 조달비중은 줄어들고 외부자금 조달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 채산성 악화 등 경영악화로 내부유보가 어려워졌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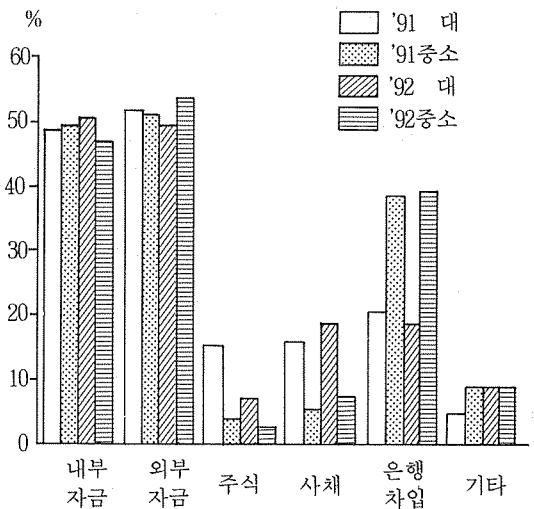
외부자금 조달원은 증권시장이 침체지속에 따라 주식을 통한 조달은 줄어들고 있으며, 사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조달패턴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91년도에 비해 내부자금 조달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각해 내부조달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보인다.

외부자금조달 측면에서 상장기업이 많은 대기업은 증권시장의 침체로 주식을 통한 채원조달이 '91년의 13.2%에서 '92년에는 5.8%로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증시의존율이 낮아 비중의 변화는 크지 않다.

[단위 : 구성비, %]

구 분	전 체		규모 별		부 문 별							
					가정용		산업용		전자부품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설비능력증가	39.8	38.2	33.4	32.7	41.7	39.9	39.5	37.9	32.3	36.0	43.4	39.3
신제품생산	13.6	10.7	12.1	11.6	14.1	10.5	21.1	17.2	9.9	9.4	14.1	10.1
설비확장	26.2	27.5	21.3	21.1	27.6	29.4	18.3	20.7	22.4	26.6	29.3	29.2
자동화	18.4	21.4	17.6	18.9	18.6	22.1	17.0	17.6	10.6	13.0	22.3	26.1
에너지절약	1.5	2.3	3.6	4.8	1.0	1.5	4.4	5.7	0.8	1.0	1.3	2.3
연구개발	21.9	22.1	19.6	19.7	22.6	22.9	15.6	15.5	34.9	31.2	16.9	18.9
공해방지	1.7	2.1	3.4	3.9	1.1	1.5	5.0	5.4	0.2	1.0	1.7	1.9
유지보수	10.4	8.5	9.8	10.2	10.6	8.0	8.3	8.0	12.3	10.3	9.9	7.8
기타	6.3	5.5	12.1	9.8	4.4	4.1	10.2	10.0	8.9	7.6	4.5	3.6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

구분	전체		규모별				부문별					
			대기업		중소기업		가정용		산업용		전자부품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91	'92
내부자금	48.4	47.2	48.3	50.8	48.5	46.2	38.8	41.8	50.1	47.6	49.3	49.9
외부자금	51.6	52.8	51.7	49.2	51.5	53.8	61.2	58.2	49.9	52.4	50.7	50.1
주식	4.6	2.7	13.2	5.8	2.2	1.9	16.5	6.3	5.7	2.4	1.8	2.1
사채	6.7	9.0	14.6	17.8	4.5	6.5	13.8	18.5	9.5	8.4	4.0	7.2
금융기관차입	34.1	34.0	20.5	18.6	37.9	38.4	22.7	30.7	28.5	33.6	38.1	33.5
기타	6.2	7.1	3.4	7.0	6.9	7.0	3.1	2.7	6.2	8.0	6.8	7.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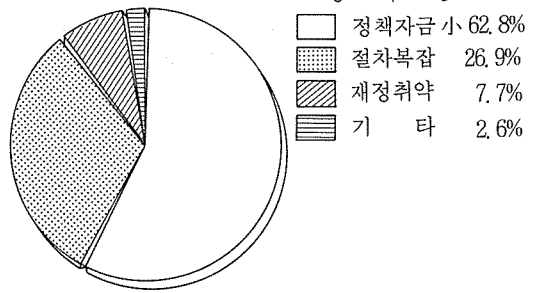
부문별로는 가정용 내부자금 비중이 늘어난 ('91 : 38.8% → '92 : 41.8%) 반면 산업용은 줄어든 것 ('91 : 50.1% → '92 : 47.6%)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자금 조달은 주로 사채시장과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자부품 업계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신인도가 저하되어 금융기관 차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5) 투자자금 조달 애로요인

업계가 투자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요인 순위로는 정책지원금융 규모부족 62.8%, 정책자금 이용절차 복잡 26.9%, 자체 재무구조 취약이 7.7%로 나타나고 있다.

규모별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정책지원금융 규모부족, 정책자금 이용절차 복잡, 재무구

자금조달 애로요인



조의 취약 순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이용절차 복잡을 더 많은 업체가 응답하여 절차상의 애로가 대기업보다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구성비, %】

애로요인	전체	규모별		부문별		
		대기업	중소기업	가정용	산업용	전자부품
정책지원금융 규모부족	62.8	72.2	60.0	55.6	66.7	61.9
정책자금 이용절차 복잡	26.9	11.1	31.7	22.2	25.9	28.6
자체 재무구조의 취약	7.7	5.6	8.3	-	7.4	9.5
기타	2.6	11.1	-	22.2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부문별로는 전체업계의 애로요인과 순위가 동일하나 가정용의 경우 재무구조 취약을 애로요인으로 응답하지 않은 반면 산업용 및 전자부품은 자체 재무구조의 취약을 애로요인으로 응답한 업체도 각각 7.7%~9.5%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 영국 투자세미나 안내

영국대사관에서는 '93년 1월 EC통합을 앞두고 영국투자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동세미나에서는 영국의 투자개발청이 모두 참석하여 투자상담안내를 할 것입니다.

또한 영국 상무부 Richard Needham 차관의 EC의 반덤핑 제도 및 영국의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할 것입니다.

동세미나에 관심있는 회원사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92. 10. 22 (목)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1층 토파즈룸
- 주요 세미나 내용
  - (주)인켈의 영국투자 사례
  - 영국 상무부 대영투자국 비디오 상영
  - EC의 반덤핑제도 및 영국의 투자지원제도 설명
  - 영국 투자개발청과의 상담
  - 대우전자(주) 영국투자 사례
  - 영국 투자환경 소개
- 문의처 : 영국대사관 투자담당상무관  
(Tel : 775~4152)